

## 조선방직의 여공들

대한산업보건협회 / 조 규 상

구 부산역에서 초량역(현재의 부산역)을 거쳐 서면으로 가기 전에 해운대로 갈라지는 곳이 범일동인데 여기에 한국동란 중 조선방직 공장이 있었다.

6·25 동란으로 잃었던 서울이 수복되어 안도의 한숨을 쉴 새도 없이 1·4 후퇴로 임시 수도인 부산에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서울의과대학도 부산 중앙동의 절간을 빌려 전시 연합대학을 개설하였다. 필자는 당시 위생학교실 조교로서 대학에서 나오는 소량의 배급미와 교통비 밖에 안 되는 봉급으로 생활의 방도가 막막하였다. 당시 피난민들은 방 한 칸도 얻기조차 어려웠고, 가족이 많은 사람은 먹기 위해 막노동과 행상도 꺼리지 않고 하였다.

의료시설도 부족하였고 돈도 없었기에 환자들은 외국 원조로 생긴 자선구호병원을 찾아들었다. 피난민 사이에서는 폐결핵을 위시한 각종 전염병들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통계도 없었고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길거리에서는 미군들이 행인들에게 살충제인 DDT를 뿌려주곤 하였다.

그런 와중에 당시 조선방직은 2,800명의 직공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생산 공장이었다. 사장 강일매씨는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 시절 그를 도왔던 강모 씨의 아들이었다. 그는 50 전후의 나이였는데 고혈압증의 환자였다.

필자는 1·4 후퇴 후 부산 거제리 포로수용소인 미 제14 야전병원 예방의무중대에 임시로 근무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김종일 선생으로부터 조선방직에서 부속병원을 만들겠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필자는 위생학교실의 상사였던 김인달 교수와 상의하여 부산에 피난 중인 서울대학 임상교수들(외과 이영균, 내과 김경식, 이비인후과 백망기 등)을 스텝으로 모시고 필자는 검사실을 담당하였다. 부속병원이라고 하지만 300평 정도의 2층 목조건물로서 5개 과에 20병상을 가진 소규모 병원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정으로서 공장에 의료시설을 가진다는 것은 큰 용단이었다.

방직공장내에 들어갔더니 벽에 온습도계가 붙어 있었다.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위하여 달아놓았나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여 물으니 공장 안내자의 설명은 실내가 건조하면 실이 끊어지기 쉽기 때문에 습도를 재기 위하여 달아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여름에



1950년대 면사공장에서 일하던 여공들

공장 안의 기온은 바깥 기온과 기계가동에서 나오는 열로 40℃를 넘는데다가 습도는 90%를 유지하여야 하니 공장 내에 들어가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여기서 여공들은 12시간 2교대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

여공들은 절반이 20세 이하였는데, 여공 중에는 유아를 가진 부인들도 30%나 되었다. 그들은 수유시설도 없는 곳에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가족이 데려온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가난하고 취업하기 어려운 시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원하였고 그 중에는 15세 미만의 아이가 나이를 속여 취업을 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맡은 검사실은 10평도 안되는 방 하나로서 간단한 혈액과 뇨검사를 하는 임상검사 외에 주로 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맡아 하였다. 필자는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한편 방직공장에서 일어나는 면폐증, 낡은 기계의 소음으로 일어나는 직업성 난청, 고온다습으로 오는 열중증, 염색공장에서 일어나는 피부질환과 중독증,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으로 인해 오는 정맥류와 편평족, 위장 장애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직업병을 논할 사정이 아니었다. 산재보험제도도 없던 시절이라 부상자를 치료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느 날 1일 2교대의 12시간 노동시간제를 하루 3교대 8시간 노동으로 바꾸도록 사장에게 건의하였더니 하루는 힘깨나 쓰는 노동조합 대표들이 찾아와 8시간 노동을 하면 임금이 줄어들텐데 당신이 채워줄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였다.

노동으로 인한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은 곧 모성활동에 장애를 가져온다. 필자는 여공들의 신체검사시 이들의 모성활동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당시 조사한 여공의 초경 연령은 15.7세로서 일반 여성에 비해 1.3년이 늦었다. 특히 초경 전에 취업한 여공은

17.1세로서 일반 여성보다 3년이나 늦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의 신체발육의 장애를 입증한다. 여공 중 23%는 월경의 불순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취업 후 초경이 온 여성에서는 더욱 심하였다.

기혼 여공들의 평균 결혼연령은 19.4세로서 오늘날과 비교하면 조혼이라고 하겠으나 당시 농촌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은 18세였고 도시는 22세였다.

평균 여공의 임신 횟수는 3.0회로서 당시 농촌기혼여성 3.7회, 도시여성 4.9회 보다 낮았으며 임신 간격은 3.3년으로 평균 2.5년보다 길었다. 이것은 여러 관련 원인이 있었으나 노동이 큰 원인의 하나로 생각되었다. 이것은 가족계획을 하고 있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들이다.

출생 1,000명당 자연태아사망률(유산)은 93.5%로 당시 농촌의 76.4%보다 높았고 특히 20-30세에서 그러하였다. 그리고 임신 초기(4개월 이내)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1,000명 출생 당 신생아 사망률(출생 후 1개월 내 사망)은 50.1이었고, 영아 사망률(출생 후 1년 내 사망)은 117.8%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전국 평균 82.9%보다 뚜렷이 높았다. 오늘날 영아 사망률 11%에 비하면 10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들 임신부의 산전 후 휴가는 24%만이 4일 이상의 산전 휴가를 가졌고, 22%의 산모만이 7일 이상의 산후 휴가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늘날 60일의 산전 후 휴가라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우유가 없었던 시절이므로 82%의 아기는 모유를 먹어야 하였는데, 공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유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상의 실태조사는 오스트리아 Wien에서 열린 제15차(1966년) 국제산업보건학술대회(ICOH)에 보고한 바 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 6·25 동란 중의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비참하였던 노동환경 조건은 우리나라 산업보건 속에서 잊지 못한 애사이다. 🇵🇸

※ '혜산'은 조규상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회장의 호입니다.